

히스패닉사회의 이해

여덟번째 마당
남미좌파정권

담당교수: 이재학

21세기 라틴아메리카 좌파정권

1.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마야 원주민들

=>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(1994년)

2.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(1999년 2월)

=> 2006년 12월 재선 도전 성공(6년, 중임허용)

=> '21세기식 사회주의' 공언(중앙은행의 국가통제, 사유재산보다 공동재산 우선, 언론검열, 통신, 전기산업의 국유화, 토지의 국유화)

=>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에 대한 각종 선심정책

=> 남미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 (2008년 32%, 2위 아르헨티나 25% 추정), 식량난 가중

=> 연임제한 없애고 임기 7년으로 늘리는 개헌 위한 국민투표 07년 12월 실시

=> 부정 선거 논란 속 차베스 패배(찬성 49.2% vs. 반대 50.7%)

- => 집권 후 100만명이 해외로 이주 (엑소더스, '차베스 난민')
- => 두뇌유출 심각, 2000억불 이상 해외 유출
- => 부패지수 69위(2001년) -> 158위(2008년)
- => 2009년 한국 방문추진 무산
- => 2009년 2월15일 장기집권 위한 국민투표 재 실시
(대통령의 3선연임 제한 철폐)
- => 찬성 54.36% vs. 반대 45.63%
- => 2011년 암 발병
- => 2012년 10월 7일 대선에서 4선에 승리(임기 6년)
(54.42% vs. 야권 통합후보 엔리케 카프릴레스 44.97%)
- => 40% 빈민층의 절대적 지지

3. 칠레 라고스 대통령 (2000년 3월)

=> 미첼 바첼렛 집권성공(2006년 1월 당선)

=> 2009년 11월 한국방문

=> 2009년12월 우파 피네라(Pinera) 당선

4. 에콰도르 구띠에레스 대통령 (2002년)

=> 급진좌파 꼬레아 vs. 우파 노보아 (2006년 11월 26일 결선투표
코레아 승리)

=> 2007년, 꼬레아 현 대통령 4년 단임제 개정 위한 제한의회 요구
국민투표 승리

=> 2008년 9월28일 신헌법 제정 국민투표 승리 (63.93% 지지, 5년
단임제 폐지=>4년 중임제 개헌)

=> 2009년4월26일, 1차 투표에서 대선 승리 (51.9%, 에콰도르 역사상
가장 높은 득표율)

=>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간투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

=> 경제성장을 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

=> 2010년 9월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 한국 방문

5. 브라질 룰라 대통령 (2003년 1월)

=> 2006년 10월 재선성공 (퇴임시까지 지지율 80% 유지)

=> 2010년 10월 31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당선

(반정부 게릴라 출신, 수감, 경제학박사, 이혼, 에너지 및 수석장관)

=> G20 룰라아 함께 한국 방문(2010년 11월)

6.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대통령 (2003년 3월) (4년 중임허용)

=> 2007년 10월 18일 부인 페르난데스 당선

=> 2010년 10월 남편 사망, 11월 G20 한국 방문

=> 2011년 11월23일, 페르난데스 재선에 성공

7. 우루과이 따바레 바스게스 (2005년 11월 1일)

=> 2009년 12월 대선에서 집권 중도좌파연합 확대전선(FA) 후보인 호세 무히카(Mujica) 당선

=> 시장경제, 대외개방, 점진적 사회분배

8. 니키라과 산디니스타 혁명지도자 오르테가 당선 (2006년 11월6일)

=> 16년만의 재집권

9. 페루 알란 가르시아(2006년 6월 당선) 국민들 '차선의 선택'

=> 80년대 후반 대통령 재임시 페루 경제 망친 주범(1985-1990)

(집권 5년 누적 인플레이션 220만200%, 1인당 국민소득 30년 후퇴,
720달러, 퇴임시 -9억달러의 재정)

=> 국민 친화적 정부로 탈바꿈, 2010년 8% 성장

=> 09년11월, 10년 11월(한-페루 FTA) 한국 재방문, 이코노미석이용

=> 2011년 6월 5일 대통령 결선 투표 실시

=> 페루 민족당 오얀타 우말라 vs. 게이코 후지모리(후지모리 딸)

=> 알란 가르시아와 마찬가지로 좌파이나 실용적 경제정책 약속

=> 부의 분배와 빈곤퇴치 공약, 외국인 투자와 자유무역 존중 약속

10.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(2005년 12월 당선) (5년 단임),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

=> 2006년 제헌의회 활동시작, 집권연장 시도 (수도이전 논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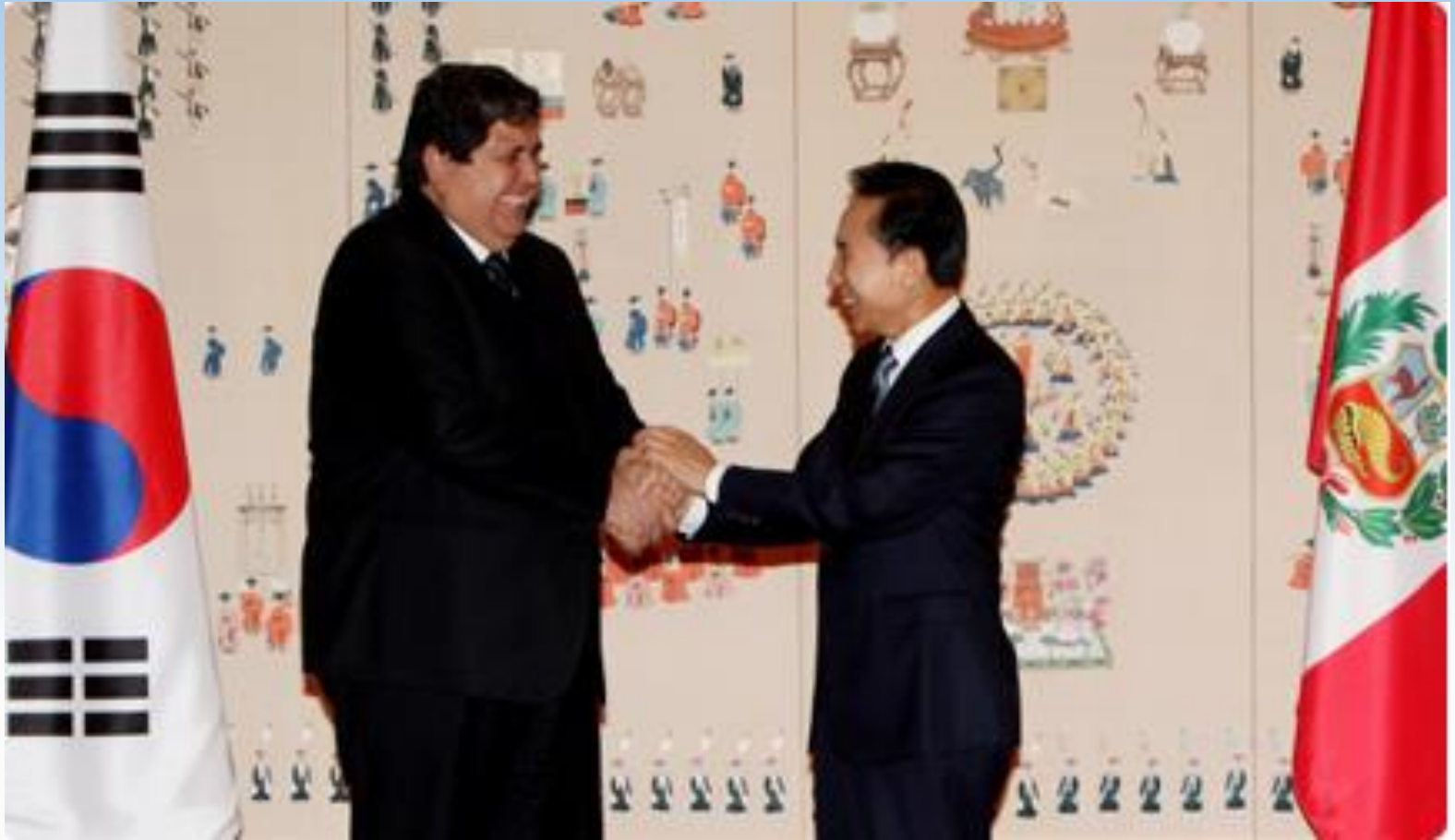
=> 대통령 연임허용, 지방자치제, 원주민 권익확대 위한 신헌법 제정
(2009년 2월)

=> 2009년 12월 대통령 선거 실시, 1차투표에서 당선(64.08%)

=> 강력한 사회주위 정책 실시 토지 재분배, 천연자원

국유화: 일부 지역의 강력한 저항(산타크루스, 베니,
판도, 타리하, 추키사카 등 5개 주)

=> 2010년 8월 한국방문



자료출처:

<http://news.mofa.go.kr/enewspaper/mainview.php?mvid=715>



자료출처: 본인

담당교수: 이재학

21세기 라틴아메리카 우파정권

1. **현 멕시코시티 시장이자 좌파정치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베스오브라도 2006년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**
 - => 우파 재집권 (펠리베 깔데론 2006년 7월 당선)
 - => 2012년 7월1일 대선, 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후보 당선 (PRI, 12년만에 정권탈환 성공)
2. **온두라스 자유당 호세 마누엘 셀라야 (2005년 11월 당선)**
 - => 자유당 출신이면서 취임초부터 중도좌파 노선 표방
 - => 노선 차이로 부통령 사임, 재선 위해 헌법개정 시도
 - => 2009년 6월 28일 헌법개정 위한 국민투표 시도
 - => 국민투표 당일 군사 쿠데타 발생, 대통령 국외 추방
 - => 2010년 1월, Porfirio Lobo 대통령 취임

3. 코스타리카 오스카 아리아스(2006년 2월)

=> 2010년 2월, 라우라 친치야 취임

=> 2012년 8월, 한국 방문

4. 콜롬비아 알바로 우리베 (2006년 5월 재선 성공)

=> 4년 중임허용

=> 2007년 지지 의원들 3선 위한 개헌 추진 서명 운동

=> 2010년 8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취임

=> 2011년 9월 방한

=> 2012년 6월 25일, 한-콜롬비아 FTA 체결

(이명박 대통령 보고타 방문)

남미 좌파 및 우파 정권의 경제성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많은
영향 받음(베네수엘라-유가 100불 이상 상승, 브라질, 아르헨티나

=> 중국으로 인한 지하광물가격 상승=> 남미 원자재 펀드 인기)

=>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심각

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

- 1992년 2월 차베스 공수부대 중령 유허 쿠테타 시도
=> 실패, 2년간 투옥 => 기존의 부패한 정치권에 불만을 가진 서민들의 지지 받음 => 대선에 승리, 1999년 2월 대통령 취임 => 제헌의회 구성
=> 대선승리 => 2002년 8월 대통령취임
- 토지개혁(개인소유 유허농지의 국가수용)
- 공기업개혁
- 노조개혁
- 사회기득권견제
- 미국과 대립 => 이라크의 후세인 방문,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
- 미국, 보수층 지원(보수언론, 구노조지도자들, 군부, 재벌) => 2002년 4월 군부쿠테타 => 실패 => 보수층 2003년초부터 대통령 소환투표 운동 전개 => 국론분열(차베스파 vs. 반차베스파) => 2004년 8월 15일 국민소환 투표 승리(58% 소환에 반대) => 2007년 12월 집권연장 위한 개헌추진=> 국민투표에서 패배 => 재실시, 통과 => 2012년 10월, 4선에 성공

브라질 룰라 대통령

- 2002년 10월 27일 브라질 노동자당(PT)의 룰라 후보 대선 승리 (61.4%)
- 강경파 노조지도자에서 집권후 중도좌파 또는 중도우파로 변신(다이어트 룰라)
- 중상류층, 외국인 투자자 위한 경제정책
- 한국언론의 룰라에 대한 견해 극명하게 엇갈림 (조, 중, 동 <=> 한겨레)
- 룰라와 노무현 대통령의 비교
- 2006년 10월 29 결선투표승리=> 재집권 성공
- 2008년 11월 15일 G20 금융정상회의(미 워싱턴DC)=> 브라질(G11: G7 + 브릭스), 영국(G7), 한국=> '주도 3국' 선정
- 2010년 G20 회의(의장국 한국), 한국 방문

니타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및 오르테가

- 니카라과 남부 지방도시의 중산층 사업가 가정 출신=> 소모사 독재에 대항, 15세에 반정부 활동으로 처음 투옥
- 대학시절 당시 사회주의 비밀조직이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(FSLN)에 투신, 지도자로 성장
- 1979년 소모사 정권 전복=> 국가재건위원회를 통해 절대 강자로 부상
- 남미 공산화 우려한 미국=> 콘트라 반군 지원=> 10년 내전
- 산디니스타 정권=> 사유재산몰수, 기업가 투옥 및 추방, 징병제 실시, 토지분배,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실시=> 빈민 환호, 수천 %의 인플레이 기록=> 1990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파 국민야당연합 후보에게 대선 패배, 이후 3수만에 재집권 성공
- 민간부문 및 자유무역 존중 약속,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=>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표결에서 패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환호=> 중남미 반미 좌파 연대구축 노골화



자료출처: http://en.wikipedia.org/wiki/Daniel_Ortega

좌파정권 관련 신문기사

- 2002년 12월,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퇴진요구 시위 (조선, 중앙, 동아)
- 브라질 룰라대통령의 우파적 경제정책 (조선, 중앙, 동아)
- 브라질 집권노동당 2004년 10월 31일 실시된 지역선거에서 승리=> 룰라대통령 집권기반강화 (국민, 동아)
- 룰라 대통령 지지율 급락(한겨레)
- 2004년 8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소환투표승리 (한겨레)
- 2004년 11월 우루과이 좌파정권 탄생(한겨레, 경향신문)
- 2008년 8월 '남미좌파정권 수난시대' (동아)

- 브라질 룰라 대통령 남미 좌파의 좌장역
- 베네수엘라 차베스 미국과 대립 동시에 룰라의 보좌관 역할 자처
 - => 남미 주도권 놓고 브라질, 베네수엘라 대립
 - => 칠레, 우루과이, 페루 등 룰라 모델 따름
 - => 볼리비아, 에콰도르, 니카라과, 쿠바 등 차베스와 연계
-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기 (룰라 모델 vs. 차베스 모델)
- 80년대: 군부퇴진, 민주화, 경제위기, '잃어버린 10년'
- 90년대: 미국 지원하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
 - => 기업환경 서유럽수준으로 개선, 노동자의 권리 악화=> 실업자, 특히 청년실업 증가
 - => 사회안전망 해체
 - => '경제성장, 빈익빈 부익부 심화'
 - => 90년대말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부작용 나타나기 시작

- => 공기업의 민영화, 긴축재정, 시장개방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실패 (IMF=> '워싱턴 컨센서스 이념') 라틴아메리카에서 실패
- => 2001년말 아르헨티나 국가부도
- => 남미 좌파 정권 대거 등장
- => 2008년 여름 미국발 금융위기
- => 남미 좌파정권에의 새로운 도전
- =>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"정부지출 축소, 근로자 해고와 같은 긴축정책을 편 유럽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패배했다"며 "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, IMF, 세계은행이 서구독점에서 벗어나 민주적으로 개혁돼야 한다"고 강하게 주장
- => 브라질의 자신감,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대국 도약 (2012년)
- => 2014년 월드컵, 2016년 올림픽 개최
- => 2015년, 프랑스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 도약 목표
- =>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요구하는 중

남미국가들의 정치, 경제적 연대

- 21세기: 선거를 통한 '좌파 쿠데타'
- 남미 경제블록화=> 남미공동시장(메르코수르)
- 경제블록화와 더불어 '남미연합' 추진, EU 및 중국과 연대 모색
- 브라질,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 연합 미국에 대항 (롤라 모델과 차베스 모델로 갈라짐)
- 멕시코의 남미공동시장과의 연계노력
- 브라질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노력

- 2007년 12월9일 , 브라질,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에콰도르, 파라과이 등 6개국 정상=> 남미 은행(Banco del Sur) 설립 협정서에 서명=> 과거 미국 이 주도하는 IMF 및 세계은행 등이 금융 구제를 내세 워 고통스러운 긴축재정 강요했던 것에 반발=> IMF에 서 독립선언=>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남미경제 성장에 의한 자신감 반영
- ‘포스트 아메리카 시대’ 대비=> 2008년 5월 25일 남미 국가연합(우나수르) 창설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=> 2019년까지 EU 수준의 통합 목표=> 친미, 친시장적 칠레, 콜롬비아, 페루, 브라질 vs. 반미성향 강한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에콰도르, 아르헨티나 간의 정책 조율이 관건

쿠바와 공산혁명

-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야욕=> 쿠바에 대한 영향력 확대 위해 쿠바독립 적극 지원
- 1895년 쿠바의 동부지역에서 민중봉기
- José Martí(시인, 독립운동가) 등 독립투쟁전개, 1895년 대스페인 전투 중 사망
- 1896년 쿠바혁명으로 확대=> 스페인, 병력 20만명 투입
- 아바나항에 정박해 있던 US Maine호 폭발사건 발생, 266명의 선원사망=> 미국의 개입 시작=> 1898년 미·서 전쟁 발발=> 필리핀과 쿠바에서 스페인 함대 격파=> 쿠바, 필리핀, 괌, 푸에르토리코 점령

- 1898년 12월 10일 파리조약 체결로 점령지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 인정, 미국의 쿠바군정 시작
- 1902년 5월 20일 쿠바 공화국 성립
 - => 지속되는 미국의 영향력
- 1952년 바티스타의 쿠테타(미국의 지원)
 - => 대통령 취임
 - => 외국인 관광객, 미국 마피아, 돈세탁의 천국
- 1959년 Fidel Castro, Che Guevarra=> 쿠바혁명 (Cuba libre) 성공
- 라틴아메리카 3대혁명:
 1. 1910년의 멕시코 혁명
 2. 1959년 쿠바혁명
 3. 1979년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

피델 카스트로, 체 게바라의 쿠바상륙

- 1956년 11월말 자정 직후 멕시코 투스판 강어귀에 디젤 엔진이 달린 길이 18M의 허름한 선박 '그란마'에 승선 정원의 7배를 초과하는 82명의 청년들이 탑승
- 멕시코만의 높은 파도와 승선인원 초과로 침몰 위기, 일주일 뒤인 1956년 12월 2일 쿠바 도착, 호세 마르티가 상륙했던 해안을 통해 쿠바에 도착하려 했지만 늪지대에 좌초되어 실패- 그라마 버리고 늪지대 빠져 나옴(8명 사망), 수렁에서 벗어나자마자 정부군 공격 받고 62명 추가로 사망
-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- 생존인원과 함께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 속으로 들어가 혁명 시작
- 25개월 뒤 카스트로는 혁명군 이끌고 아바나 입성

- 쿠바 중상류층들의 쿠바탈출(엑소더스)
=> 현재 마이애미에 약 80만명에 달하는 쿠바인들 거주 (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의 거리 145킬로미터에 불과)
- 1961년 케네디의 쿠바 카스트로 정권 전복 결심=> 4월, CIA, 천오백명의 재미쿠바인들 지원, 쿠바반군 피그만 공격 감행=> 실패
- 1961년 12월, 카스트로의 공산주의 노선 채택 선언하는 TV 연설 “나는 막스 레닌주의자다”- 미국에 큰 충격
- 1962년 소련의 흐루시초프, 쿠바에 미사일기지 건설추진 => 무산
- 미국의 관타나모 군사기지 점유지속
-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
- 소련의 대쿠바 경제원조(원유공급, 사탕수수구입)

- 80년대말 소련의 해체, 동구공산권 몰락
- 90년대=> 쿠바의 경제난, 카스트로에 대한 최초의 민중봉기 발생, 미국으로의 대규모 탈출시도(제2의 엑소더스)=> 카스트로, 자본주의 시장정책 도입선언=> 사유재산 인정, 시장경제 도입, 개인의 상거래 허용, 대외투자 추진, 문호개방=> 관광산업 활성화, 10여 년만에 경제사정 좋아짐
- 베네수엘라 차베스 집권 이후 쿠바에 석유 지원
- 2006년 11월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건강악화
 - => 동생 라울에게 임시 권한대행
 - => 2007년 11월 현지 현직에 복귀, 정상활동 중

한국과의 관계

- 좌파, 우파 상관없이 한국과 우호관계
- 유일한 예외는 베네수엘라
- Fidel Castro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
- 칠레 바첼렛 대통령(2009년 11월), 페루 가르시아 대통령(2009년 11월, 2010년 11월),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(2010년 8월), 에콰도르 꼬레아 대통령(2010년 9월)들의 한국 방문
- 2010년 11월 G20=> 멕시코, 브라질, 아르헨티나 대통령 한국방문
- 2011년 11월 서울 컨센서스- '지속가능한 균형성장' (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가역할 강조)
- ⇔ 워싱턴 컨센서스- 정부개입 최소화, 시장논리 강조